



PHI News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식]

2010년 11월 10일
(제4호)

137-84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9-3 인산빌딩 302호 070-8658-1848, F 02-581-0339, <http://health.re.kr>

PHI NEWS 첫 페이지에 들어가는 말을 쓰지 않고 바로 칼럼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양도 없는 소식지가 너무 딱딱해지기까지 하면 누가 보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편집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한쪽짜리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10월 23일 토요일 저녁, 연구소가 새롭게 진용을 정비하고 처음으로 회원의 날을 맞았습니다. 변영주 감독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편하게 대화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의미 있고 즐거우며 훈훈한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회원의 날인데, 소개의 시간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소개의 시간'을 프로그램에 넣으며, 그 시간에 회원 간에 얼마나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될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우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나 화기애애하시던지...

주 제는 '영화의 상상력, 세상을 바꿀 수 있나' 였습니다. 그런데, 강연은 주제와 크게 상관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우문현답이었다는 것을 강연이 끝나는 시점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강연 내내 '현실 안에 있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실에서 받을 뎨 그 어떤 상상력도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돌려서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현실 안에 있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으면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늘 '당대'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떠한 상상력도 당대를 표현해내는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감정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본다면, 그녀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받아들인 것과는 또 다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쓰는 이 글은, 제가 받아들인 감정을 전하는 글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원의 날 행사를 무사히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우리 연구소가 현실에 받을 때지 않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소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음속에 살짝 담아보았습니다.

겨울을 맞으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 상 회 드림



PHI 칼럼

가깝지만, 보이지 않는 건강문제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형평연구센터장)

올 해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3차례의 정책 강좌가 지난 주 소장님의 강연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4월에 시작된 첫 번째 강좌부터 내내, 수강자들이 보여준 높은 출석률과 열의에 강좌를 준비한 연구소 식구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출석률이 낮았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노동자 건강을 위한 새로운 대안모색’이라는 제목의 임준 선생님 강의였습니다. 물론 학회와 겹쳐 강의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노동 배제 문화,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무관심을 일부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 동이 없다면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 그래서 어디에나 일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은 심지어 보건학계 내부에서도 놀라울 만큼 낮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의학이나 산업위생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아닌 노동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년 2천명, 하루에 여섯 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공중보건 이슈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보건학 문제라 할 수 있을까요? 성인들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OECD 국가들 중 최장의 (그것도 압도적인)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위험에 폭로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일터입니다.

건 강 문제를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로 협소하게 바라보았던 것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건강결정요인들로 지평을 확대한 것처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공중보건 문제, 건강불평등의 핵심 이슈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윤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이 쓰러지는 것만큼 불공정하고 낭비적인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일 하는 사람의 건강문제에 대해 연구소 회원들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소중하니까요!



(끝).

PHI 알림

PHI 동향

■ 회귀난치성 환자들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일시 : 2010년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장충동 만해 NGO 교육센터 2층
주최 : 경상대학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금연 이슈 중 담배값 인상 주제로 시민진보진영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일시 : 11월 末,
장소 : 미정
주최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보건의료뉴스읽기모임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와 함께 하는 ‘보건의료 뉴스읽기모임’은 매월 첫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학로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모임은 12월 7일(화)입니다.

■ 건강형평성연구 기금



사회역학의 역자이신 신영전·김명희·전희진·김석현 선생님께서 인세 2,296,434 원을 건강형평성 연구 기금으로 기부해주셨습니다.



저자 : 리사.F.버크만
이치로 가와치
역자 : 신영전 외
출판 : 한울
정가 : 28,000원

■ 세계 대한의료 탐방 기획 중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및 한겨레신문사와 함께 ‘세계대한의료 탐방_쿠바’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비수교 국가인데다 현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예상보다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전 수요조사에 살뜰히 답변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차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기타 연구 진행 상황 보고

(1) 보건의료운동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우리 연구소는 공공노조가 의뢰한 ‘보건의료운동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5일 한정희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시기 노동조합의 활동과 각 병원에서 공공의료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성, 공공의료’와 관련한 개념을 정리하고 최근 관련 연구자료를 검토하며, 현장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는 12월말 까지 진행됩니다.

(2) 한국사회의 불평등- 건강과 보건의료 연구

서울대학교가 지원하는 2010년 한국학장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 ‘한국 사회의 불평등 - 건강과 보건의료’ 연구에 김창업 소장, 김창보 연구실장, 김명희 건강형평센터장, 손정인 영펠로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보건대학원 이

태진 교수와 보건정책연구실 김성이 박사과정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목적은 지난 20년간 한국사회 건강 및 의료보장에서의 불평등 현상을 개괄하고 심층적으로 해석하며, 이후 연구 및 정책에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연구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총 1년이며 현재 수차례 연구진 회의와 자문회의를 거쳐 한국사회 불평등 현황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원안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함께 해요 ♥

- 우리 연구소는 ‘건강불평등을 모니터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보건의료의 개혁과 대안담론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주제로 강좌를 개발하여 보건의료 부문의 종사자와 학생, 의료인 등과 함께 공부하며 인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우리 연구소는 ‘비정부기구’로서 정부와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병원, 제약회사, 보험회사의 후원 또는 연구비 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시민의 후원에 의한 기금을 통해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독립 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 이와 같은 연구소의 뜻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우리 연구소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연구 성과물을 함께 나누며, 한국 사회 보건의료 개혁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갑시다.

○ 우리 연구소의 회원이 되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health.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안내’를 클릭하면 됩니다.

※ 연구소에 납부하시는 후원금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을 해드립니다.

○ 회원가입 문의

전 화 : 070-8658-1848,
070-8659-1848

팩 스 : 02-581-0339

이메일 : phprc@hanmail.net

○ 찾아오는 길



살림살이

	구분	내역	수입	지출
수입	회비	10월 회비 (11/1입금)	4,349,200	
	사업 수입	희귀난치질환 조사연구비, 공공노조 연구비 등	5,999,600	
	기타 수입	체납전기세 등 (빌딩주인)	536,562	
	후원금	비정기후원금	2,244,040	
지출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1,800,000
	공과금	전기세(체납) 복사기렌탈 LPG가스		711,570
	복리 후생비	4대보험 (건보,연금, 고용,산재)		731,580
	사업비	강좌, 회원의 날		2,372,410
	비품비			20,500
	인건비			4,807,638
	지급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3,000
	통신비	홈페이지, 전화, 인터넷 등		136,080
자료 구입비	경향신문 구독		15,000	
	계		13,129,402	10,597,778

- End -